

참고도서

강승삼, 「21세기 선교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강승삼, <GCR과 WEF 선교위원회 전략회의가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과 전망>, 「한국선교」 Vol. 1, No. 1, 가을호, 2001.
 김병음, <타문화권 선교와 선교사 훈련소고>, 「한국선교핸드북 1998-2000년」, 안산: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8.
 김수음,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서울: 도서출판 책사랑, 1990.
 문상철, <한국선교의 현황과 과제(1998)>, 「한국선교핸드북 1998-2000년」, 안산: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8.
 이복수,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의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근삼 박사 사역 50주년 기념 논집), 서울: 총회출판국, 2002.
 이상규, <고신선교 40년 개관>, 「고신선교 40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8.
 이태웅,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7.
 이태웅, <한국선교사 배치전략 수립의 시도>, 「한국선교핸드북 1998-2000년」, 안산: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8.
 이태웅, <한국 선교사는 누구인가?>, 「한국선교핸드북 1998-2000년」, 안산: 한국 해외선교회 출판부, 1998.
 전호진, <고신선교 40년의 전략적 고찰>, 「고신선교 40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8.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1991.
 Kane, J. Herbert,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백인숙 역,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3.
 Lane, Denis, *Tuning God's New Instruments*, 도문갑 역, 「선교사와 선교단체」,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3.
 Lindsell, Harold, *Missionary Principles and Practice*, Westwood: Fleming H. Revell Company, 1955.

기독교대학교의 유형과 상황

Models and Context of the Christian University

조성국 / 교육학박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교수
 Prof. Dr. Song-Guk Joh

1. 서론	_ 109
2. 기독교대학교 유형의 일상적 구분	_ 112
3.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대학교의 유형	_ 117
4. 기독교대학교 유형과 상황	_ 125
5. 결론	_ 130

주요어 | 기독교대학교, 미션스쿨, 대학유형, 기독교세계관, 사립대학교,
고신대학교, 신학대학교

요약문 |

기독교대학교의 유형탐색은 기독교교육철학(신학)적 반성 못지않게 특정 역사적 상황에 대한 기독교공동체의 반성에서 나왔다. 기독교철학(신학)적 반성과 상황적 반성은 역사 안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독교세계관을 반영하였다. 기독교세계관의 주된 유형은 (1) "자연에 대립하는 은총", (2) "자연 위에 있는 은총", (3) "자연과 병행하는 은총", (4) "자연과 유사한 은총", (5)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 유형이다. 한 공동체의 내면에 작동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현실적 상황에서 그 유형을 따른 기독교대학교를 낳았다. 마지막 유형을 제외하고 이 모든 유형들은 상황이었던 서양역사의 발전과정에서 거의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그 유형의 진행순서는 서양의 영향으로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온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인본주의와 경제중심주의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21세기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취해야 할 기독교대학교 유형은 성경적 세계관에 일치하는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 유형이어야 한다. 기독교공동체가 그 유형에 따라 기독교대학교를 구현하고 발전시켜 가야 할 적극적인 소명과 과제를 갖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기독교대학경영은 기독교공동체의 지원정도를 고려하면서, 또 그 지원정도를 확대하면서, 그 정도에 맞게 대학교의 규모를 조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기독교공동체는 교회여야 한다.

조성국 교수

고신대학교와 남아공화국 네덜란드계 기독교대학교인 Potchefstroom 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신학, 교육철학을 공부하여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저서로는 「복음 그 신령한 은사」(SFC, 2001), 「한국현대신학과 한국교회의 구원관」(클릭, 2002), 「돈과 경제와 그리스도인」(클릭, 2002), 「약속과 믿음 사이에서」(SFC, 2004), 「메시아적 모험의 리더 다윗」(클릭, 2005) 등이 있다. 현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서 기독교교육사, 기독교인간학, 종교교육론, 현대기독교교육이론 등을 강의하고 있고, 고신대학교 교목실장, 기독교교육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Abstract

Models and Context of the Christian University

Contemplation on the ideal and real Christian university model comes from both the Christian philosophical(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aim and function of the university and the historical contextual reflection of the Christian community. These reflections get into shape a theory in keeping accord with a specific Christian worldview. The typical Christian worldviews are (1) gratia contra naturam, (2) gratia supra naturam, (3) gratia juxta naturam, (4) gratia instar naturae, (5) gratia in naturam. A specific worldview gives birth to a type of Christian universities. Christian university models in the humanistic Western context, except the last, have progressed in the same order of the models in history, and the order has been true in Korean society, which has followed the process of the Westernization, that is, modernization and democracy. Nowadays Korean Christian universities suffer from crucial identity crisis because of student application decline, financial problem as well as worldview conflict. The model of the Christian university in consonance with the Reformed worldview is "gratia in naturam". However,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the Christian university depends on the extent of the church support in student supply, financial fund as well as prayer. Therefore Christian universities should take the university size and the church support limitation into consideration.

Keywords:

Christian college, Christian univeristy, mission school, university model, Christian worldview, private college, Kosin university, theological college

1. 서론

기독교대학교의 유형에 대한 탐색은 기독교 교육철학적(혹은 신학적) 반성 못지않게, 아니 더 많은 경우는 특정 역사적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중세기에 교회와 밀접한 관계 안에서 설립되어 발전해온 대학교는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기독교세계관을 탈피하고 그 대신 빠르게 인본주의 세계관을 수용하였으므로 근대의 대학교들은 대부분 교회의 통제를 벗고 인본주의 및 자연주의 세계관 위에서 세속국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형을 발전시켰다.

일반학문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인본주의 및 자연주의 세계관에 따라 재편되어 더욱 확대되었고, 기독교세계관의 내용핵심 학문인 신학도 그 세계관에 따라 정체성을 조정하여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학의 이름으로 대학교 안에 남거나, 아니면 대학교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한 새로운 유형인 신학대학교를 통해 정통적 신학교육과 탐구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인본주의 및 자연주의 세계관이 지배한 근대에 학교들을 지배한 국가는 국가(민족) 이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국가(민족)주의 이데올로기 형성의 훈련장으로 삼았으며, 대학교는 그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복음적 성향의 기독교공동체들은 국가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 신학대학교나 교회대학교들을 설립하였고, 네덜란드에서는 기독교학과와 기독교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션스쿨은 조선왕실로부터 선교의 자유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어교육과 근대교육의 절실

한 필요에 부응하여 가까운 미래에 국가를 주도하게 될 인재들에게 기독교에 친밀한 태도를 갖게 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전략에 따라 설립된 학교였다. 그리고 중등학교의 졸업자들이 배출되면서 그 학교들은 대학교 과정을 확장하였다.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중심인 왕실과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몰두한 식민국가라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독립된 신학교를 설립했다. 해방이후 복음화의 빠른 진행으로 교회와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또 산업화에 따라 고등교육의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적 상황을 활용하여 한편으로는 많은 미션 대학교들이 설립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교들이 신학대학교 혹은 기독교 종합대학교로 확대되면서 발전하였다. 사회의 고등교육일반화에 따라 신학대학교는 신학교육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하여 신학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신학대학원대학교 등으로 발전해왔다.

21세기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상황도 신학대학교와 기독교대학교로 하여금 그 정체성 구현의 형태인 유형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경제지상주의, 민족주의 등 최근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관들과 더불어, 수도권 집중현상, 학벌 중심주의, 급격한 출산을 저하현상 등 실제적 상황도 기독교대학교의 유형반성을 촉구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기독교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발전시켜온 독특한 신학 전통과 더불어 이처럼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기독교대학교의 유형을 반성하면서 기독교대학교를 발전시켜왔으므로, 그리고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문화의 상호교류가 더욱 빈번해지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극대화되면서, 또 다양한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대도시환경이 현대인의 주된 생활환경이 되면서, 이제는 한 기독교공동체 안에서조차 기

독교대학교의 특정 유형에 대한 의견일치를 얻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요구가 기독교대학교의 유형에 대한 반성에 개입되고 있다.

기독교대학교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많다. “기독교”라는 단어를 명사로 채택하느냐 아니면 “대학교”를 꾸며주고 한정하는 형용사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유형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전통에 따라 다른 유형을 생각해낼 수 있다. “대학교”라는 용어도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의 기능과 구조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으므로 오늘날의 대학교는 중세기의 대학교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학교의 운영주체와 지식의 범위와 주된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오늘날 수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아진 대학교들은 “대학교” 만으로도 다양한 유형구분이 가능할 정도이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대학교들은 그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인 교단 내부에서도, 대학교의 교수와 직원 내에서도, 또 졸업생과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기독교대학교에 대한 이해와 기대에 있어 우려할만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구성원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정체성 및 방향성 혼란은 평소에는 잠복되어 있지만 기독교대학교의 당면한 위기대처방법 혹은 발전방향설정과정에서 개별적 이해관계와 더불어 표면에 등장하여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세기의 특별한 한국 상황에서 많은 기독교대학교들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적 정당성을 갖추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을 탐색하는 일에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탐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독교대학교의 본질과 구조와 기능에 대한 종합적 통찰을 반영하는 유형구분방법은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기독교대학교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열정과 소박한 비전에 따라, 상황을 고려한 실용적 방법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온 한국의 기독교대학교에 있어서 이러한 탐색은 위기극복과 발전방향 설정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필수적이다. 부주의하고 예상되지 못한 방향 결정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학교의 유형에 대한 탐색은 대학교의 본질, 구조, 기능,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기독교세계관의 탐색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의 주요 기능인 학문의 기초는 학문 철학이며, 그 학문철학의 토대는 전(前)이론적인 종교적 성격의 세계관이기 때문이다.¹⁾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기독교대학교의 일반적인 유형구분을 검토하고,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유형구분을 시도하고, 그 유형과 21세기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기독교대학교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기독교대학교 유형의 일상적 구분

기독교대학교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기독교대학교의 유형문제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탐색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으로 사회 및 기독교계에서 수용되고 있는 구분방법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B. J. VanderWalt, *The Liberating Message: a Christian Worldview for Africa*, Potchefstroom: IRS, 1994, 123, 126.

1) 국가 사회적 유형구분에 있어서 기독교대학교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교는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국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공립대학교, 학교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립대학교로 구분된다.²⁾ 국립과 공립대학교는 한 부류로 구분되어 국·공립대학교 범주에 들므로 대학교는 크게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로 나뉜다. 설립과 경영 주체와 무관하게 대학교는 그 목적과 구조와 기능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구분된다.³⁾

이러한 설립·경영주체에 따른 구분과, 목적과 구조와 기능에 따른 대학교의 유형을 조합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적으로 (1)국·공립 범주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그리고 (2)사립의 범주에 대학, 대학원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사내대학, 기능대학으로 구분하고 있다.⁴⁾ 이러한 국가사회의 법적 구분 안에서 기독교대학교는 사립대학교의 범주에 속하고, 사립의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할 수 있는, 대학, 대학원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사내대학, 기능대학의 모든 유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기독교대학교란 기독교단체가 학교법인을 만들어 설립·경영하는 모든 유형의 사립대학교를 뜻한다.

2) 고등교육법 제3조

3) 고등교육법 제2조

4)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수첩」,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58-165

물론 일반적인 법적인 유형구분은 아니라고 해도 사립대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내의 유형구분에서 일반 개인(혹은 집단)과 종교단체는 별도로 범주화할 수 있는 유형이므로 종교단체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립대학교를 “종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 경우 종립의 범주 안에서 기독교단체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립대학교를 기독교대학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신학교로 설립된 이후 국가의 대학인가를 획득하고 신학관련 학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대학교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유형에 따라 “신학계대학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사회에 통용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사립대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개인이 학교를 통한 전도의 목적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독교계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해당사립대학교를 기독교대학교로 표방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와 사회의 일반적인 범주에서 기독교대학교는 이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구분은 비록 국가행정 및 일반사회 안에서 통용된 구분이기 는 하지만 기독교계 안에서 논의되는 기독교대학교의 특성과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2) 기독교계 내의 설립·경영 교단에 따른 유형구분

기독교대학교는 기독교공동체 안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대학교이므로 해당 기독교공동체가 견지해온 특정 신학적 전통과 역사적 특성이 자연스럽게 기독교대학교의 유형이 된다. 교회사학자들에 의해 흔히 시도되는 이러한 유형구분은 휴즈와 아드리안(Richard T.

Hughes & William B. Adrian)의 작업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⁵⁾ 휴즈와 아드리안은 미국 기독교대학교들을 교단적 범주에 따라 로마가톨릭전통, 루터파전통, 개혁신교회전통, 메노나이드전통, 초교파복음주의전통, 웨슬리안과 성결운동전통, 침례교와 재건축의전통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독교공동체의 신학적 전통(혹은 세계관)이 기독교대학교에 어떠한 특성을 부여했는지 보여주려 하였다. 이 경우 기독교대학교 유형구분의 초점은 기독교공동체의 신학적, 역사적 특성에 두어져 있다.

이러한 유형구분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기독교의 장로교단(고신, 합동, 통합, 기장), 감리교단, 성결교단, 침례교단, 오순절교단 등 주요교단들은 사립대학교들을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으므로 교단 내에 대학교를 위한 개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각 교단의 신학적 혹은 역사적 전통은 각각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른 구분과 마찬가지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구분은 교단의 수만큼이나 많은 기독교대학교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여러 기독교대학교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간의 공통성 내지 차이성에 근거한 범주화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역사적인 유형구분으로서의 장점은 있으나 기독교대학교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탐구하는 일에 효율적인 유형구분방법은 아니다.

5) R. T. Hughes & W. B. Adrian,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rvival and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97, 1-9.

3) 설립목적에 따른 일반적 유형구분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기독교대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미션스쿨로서의 “소위” 기독교대학교와, 목회자양성 및 기독교관련전문성 구비를 위해 설립된 신학대학으로서의 기독교대학교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는 대학교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 해당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기독교신앙을 갖게 하고, 기독교적 가치교육으로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유형은 대학교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설립·경영 주체의 형태는 포괄적이어서 초기에는 선교사들에 의해 주로 설립되었으나, 해방이후에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개인 혹은 개별 교회에 의해 설립되어 경영되고 있다. 신학대학교는 교단이 주체가 되어 설립하거나, 초기에는 개인이 설립하였으나 교단으로 그 경영이 이양된 경우, 교계의 유력한 지도자에 의해 설립되어 교단과의 협력관계 안에서 경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유형구분은 비록 기독교대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른 분류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기독교대학교 이해에 있어 “기독교”를 내용으로 취하는 방식이다. 미션스쿨에서는 예배, 성경수업, 전도활동을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삼으려 하고, 신학대학교는 기독교신앙 자체에 대한 전문교육과 예배(경전회)를 대학교육의 내용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유형구분은 기독교대학교의 “대학교”와 관련된 충분한 시야를 열어주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 경우 “대학교”에 대하여는 기독교가 한정하는 특별한 유형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립대학교의 유형을 따른다. 그러므로 철저한 기독교대학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양자의 유형구분이 기독교대학교의 참된 유형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두 유형이 검토하지 않고 있는, 일반 전공학문분야에 대한 기독교적 탐구와 기독교교양교육을 통한 기독교적 인간성 형성과 학교공동체 전체의 기독교적 비전을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기독교대학교를 제안한다.

이상의 일반적인 유형구분은 대부분 기독교대학교의 설립 및 경영주체라는 사회적 유형구분, 그 집단의 신학전통과 역사적 맥락을 중심한 현실적 구분방법이다. 이러한 구분이 유의한 경우도 많으나 대체로 대학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구분방법은 초보적이고 피상적이어서 기독교대학교가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와 발전방향설정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교회가 아닌 “대학교”라는 기관에 적합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유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대학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 내용이어야 한다는 한계를 넘어, 대학교육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형용사(기독교적 관점)로 기능함으로써 기독교적 관점이 대학교의 주요 기능인 교육과 연구와 봉사에 있어 어떠한 독특한 구조적 특성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른 유형구분이라야 정체성 및 방향성 논의에 효과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대학교의 유형

기독교대학교는 “기독교”와 “대학교”가 합성된 용어이다. 기독교의 의미의 다양성과 대학교의 의미의 다양성, 그리고 그 양자 사이의

조합의 다양성이 기독교대학교의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명칭에서 “기독교”를 명사로 간주하는 경우는 전체 기독교대학교의 유형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다. 기독교를 학문연구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신학대학교와 기독교신앙의 기본내용을 교양교육내용으로 삼고 있는 미션대학교는 전체 기독교대학교의 두 가지 유형이 될 수는 있으나 기독교대학교의 전체유형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기독교”라는 표현을 “교회”라는 표현과 동일시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두 기관인 “교회”와 “대학교”가 합성되었다고 보고, 두 기관의 내용들이 비율에 따라 합성되어 예배와 전도라는 교회 중심적 기능과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기능이 함께 발휘되는 것을 기독교대학교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종종 대학교 내에 교회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 “기독교”는 “대학교”의 고유한 기능과 별도로 존재하므로 교회가 아닌 대학교의 고유한 목적과 구조와 기능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기독교대학교라는 명칭에서 “교회” 대신 “기독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독교”란 종교에서 비롯되는 세계관과 전통을 표현하는 말이며, “대학교”는 문화전수를 위한 교육과 문화창조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관 개념이라고 할 때, 기독교는 교회 대신 그 기관(대학교)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르게 발전하게 만드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 문화의 전수와 창조가 이루어지는 전문기관이라고 할 때 니버(H. R. Niebuhr)가 그리스도와 문화의 상호관계형태에 따라 기독교역사에 나타난 여러 전통을 유형화 한 5가지의 유형구분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⁶⁾ 그러나 이 글은 기독교전통과 문화보다 좀더 구

체적인 문제인 기독교대학교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델발트(B. J. VanderWalt)의 5가지 기독교세계관 유형모델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⁷⁾ 판델발트의 세계관 유형을 논의의 필요에 따라 원래 순서를 바꾸고 조금 변용하여 기독교대학교와 관련한 유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기독교세계관 유형은 “자연에 대립하는 은총(*gratia contra naturam*)” 유형이다. 이 유형은 16세기 재세례파, 현대에는 칼 바르트, 자크 엘룰(Jacques Ellul), 그리고 오순절신학그룹 및 초기 복음주의자 그룹 등이 견지한 기독교세계관이다. 여기서 자연은 창조세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문화활동과 인간사회 전반을 뜻하며, 은총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과 교회 등을 뜻한다. 이 세계관에서는 자연(창조세계)과 은총(구속)사이에 반립이 설정되어 있어서 자연과 은총을 종합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므로 자연과 사회 영역에 속한 정치, 철학, 과학 등을 세상과 동일시하여 거부하거나 그 모든 것을 은총(복음)으로 완전히 대체하려 한다.

이 유형의 기독교세계관에서 기독교대학교는 신학대학교이다. 따라서 기독교공동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은 독립적인 신학대학

6) H. R.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51. 니버의 5가지 유형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의 그리스도(The Christ of Culture),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bove Culture),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Christ Transformer of Culture)이다.

7) B. J. VanderWalt, op. cit., 99-118. 판델발트는 기독교세계관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취급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도 근세이후 서구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확산된 주요한 세계관이었으므로 그 유형을 포함하여 5가지로 정리하려 한다.

교(원)를 설립하고 그 신학대학교(원)만을 육성하려 한다. 이러한 기독교공동체의 주된 관심은 대학교육에 있지 않다. 설사 대학교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심은 미션스쿨의 경우처럼 예배와 성경 및 교리과목, 혹은 학원선교단체 활동에만 두어진다.

이 유형은 복음전래 이후 배타적 유교문화, 일본군국주의와 신사참배, 공산주의 등 기독교에 적대적인 국가사회(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여 초현세적 영성을 강조해온 우리나라 많은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유형이다. 이 기독교세계관이 한국에서는 기독교대학교가 신학대학교와 미션대학을 기독교대학교로 이해하게 만든 원인이다.

(2) 둘째 기독교세계관 유형은 “자연 위에 있는 은총(*gratia supra naturam*)” 유형이다. 이 세계관에서 기독교공동체는 은총(구속)이 자연(창조세계)을 지배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는다. 이 유형은 전형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로 로마 가톨릭의 세계관이 되어왔으나 개신교 안에서도 권위주의적 지도자들과 깊은 신학적 탐색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보수적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유형이다. 한국사회의 보수적 권위주의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계대학교들이 신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 유형을 따르고 있다.

이 세계관 유형에서 기독교대학교는 신학의 지도를 통해 온전하게 하려는 과제를 수행하려고 한다. 자연히 신학이 최상위 학문으로 인정되고, 모든 다른 학문들을 지도하여 온전하게 해야 할 신학교수들의 권위가 강하다. 다른 학문분야 교수들은 신학의 지도를 받는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하거나, 자신들의 교육과 학문 활동에 성경구절과 기독교적 용어를 덧입혀 “온전하게” 하려는 시도를 해본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독교철학자들은 마치 케익(자연)의 표면에 생크림(은총)을 바르는 것과 같아서 실제로 은총이 자연(케익)을 관통하여 케익을 통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모델이 못된다고 본다.

(3) 셋째 기독교세계관 유형은 “자연과 병행하는 은총(*gratia juxta naturam*)”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전통적 루터파와 최근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견지하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마치 루터가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에 동시에 산다고 표현한 것처럼, 자연(창조)과 은총(구속)이 각각 유효하고, 서로 특별한 연관성 없이 나란히 위치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공동체 안에서 자연은 종종 무시되기도 한다.

이 유형의 기독교세계관을 견지하는 기독교공동체는 기독교대학교 설립과 경영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이 일반대학교이건 기독교대학교이건 상관없이, 대학교 안에서 기독교를 탐구하는 신학과 창조세계를 탐구하는 일반학문이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동시에 각자의 전문영역을 인정한다.

미션대학교의 경우에도 예배와 기독교신앙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는 더 이상 종교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 이 유형은 절대적 권위가 해체되는 민주화된 다원적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션대학교에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기독교대학교 유형이다.

(4) 넷째 기독교세계관 유형은 “자연과 유사한 은총(*gratia instar naturae*)” 유형이다. 이 유형은 르네상스 시대 및 근대의 철학자들, 그리고 자연신론적 신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자유주의적 기독교세계관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인본주의와 자연주의 세계관에 맞춘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은총과 자연이 거의 차이가 없다. 실제로 자연으로부터 은총이 발전한다

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 결과 삶의 실제에서 선하고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세계관 유형을 견지하는 기독교공동체는 특별히 기독교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중세기로부터 설립된 대학교들은 근대와 현대를 거쳐 오면서 인간의 이성과 세계의 현실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진보하면서 발전해가고 본다.

이 유형에서 기독교대학교들은 일반대학교화하고, 신학조차도 일반 학문화하거나 다원주의적 종교학의 성격으로 바뀐다. 물론 현세적 세계관과의 차이가 있다면 인본주의 세계관과 충돌하는 각종 권력 지향 이데올로기에 대항한다는 점이다. 이 유형의 기독교대학교들은 대부분 서양의 일반대학교들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의 미션대학교들 중에도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대학교들의 실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5) 다섯째 기독교세계관유형은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gratia in naturam*)” 유형이다. 개혁신학을 따르는 개혁교회공동체는 이 모델을 자신들의 기독교세계관으로 간주한다. 이 유형의 기독교세계관은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이므로 세계에 대하여 대단히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리고 은총(구속)이 자연의 깊은 내면까지 침투하여 자연 자체를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그것이 하나님께 드러지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그래서 이 모델은 “자연을 변혁하는 은총(*gratia naturam transformans*)” 유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유형에 따른 기독교공동체는 적극적으로 기독교대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해야 한다는 비전과 열망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창조세계와 사회에서 수행되는 교육과 학문 활동을 새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며 그 소명을 수행하는 것

이 곧 기독교대학교이다. 여기서 기독교대학교는 예배와 기독교신앙 교과목의 한계를 넘어 대학의 교양 및 전공교육, 연구, 봉사 등 대학교의 본질과 구조와 기능 전반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조화되는 방식을 만들어낸다. 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신앙고백처럼,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학교고백이 대학교육의 기초이념이면서 방향지도지침이 된다.

이상의 5가지 기독교세계관 유형은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각각 특징 있는 기독교대학교 유형을 발전시켰다. 물론 이 5가지의 유형들도 주목할만한 공통성과 차이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로 범주화될 수 있다. 첫 번째 세 가지 유형들(자연에 대답하는 은총, 자연위에 있는 은총, 자연과 병행하는 은총)은 세계를 자연과 은총 곧 속(俗)과 성(聖)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패러다임들이다. 주로 속의 영역은 이성, 과학, 대학, 사회, 국가 등 “소위” 세상이라면, 성의 영역은 신앙, 신학, 신학교, 교회로 간주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차이점은 이 두 영역 사이의 관계의 성격에 있을 뿐이다.

마지막 두 가지 유형(자연과 유사한 은총,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은 모두 이원론을 해체시키는 통전적 성격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성격적 관점에서 자연을 성(聖)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속의 구분법 자체를 해체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의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볼 때 전자는 전형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이지만 후자는 사실상 인본주의 세계관이라 해야 할 것이므로 판델발트가 이 유형을 기독교세계관유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다룬 것은 이해할만하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고 필자가 견지하는 네 번째 유형(자연을 관통하는 은총)의 기독교세계관에 따르면, 창조세계자체를 특정 영역에

따라 성과 속으로 구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세계 자체가 속이 될 수 없는 것은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총은 자연과 대립되지 않는다. 대립되는 것은 은총과 자연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이며, 이 대립적인 영적인 원리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

성(聖)으로 간주되는 영역(교회, 신학교, 선교단체 등) 안에서도 어둠의 영적 원리는 기능하고 있으므로 그 영역 안에서도 영적인 투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직업세계도 속의 영역에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지향하여 빛의 영적 원리가 현실화 되도록 일해야 할 영역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원리의 대립을 잘못 이해하여 세계 자체를 이원화하는 이원론적 구분은 실재와 일치하지 않는다.⁸⁾

대립적 영적 원리의 현실은 대학교의 고유한 활동인 교육과 연구와 봉사에도 작동하고 있으므로 문화와 사회의 회복을 위해 대학교육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영적 원리가 어둠의 영적 원리를 밀어내고 타락의 왜곡상태를 회복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영적 원리의 대립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세계관을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대체해버린 결과이거나, 처음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축소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우주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구속의 은총이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문화와 사회의 변혁을 위해 필연적으로 기독교대학교의 설립과 경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현대의 구체적인 상

8) *ibid.*, 114-117.

황 안에서 기독교대학교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 연구, 봉사 등 개별 분야에서도 부분 유형에 대한 탐구가 시도된다.⁹⁾

4. 기독교대학교 유형과 상황

앞에서 분류된 기독교대학교 유형들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세계관의 결과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통합방식의 표현이었으므로 순전히 이론적인 유형은 아니었다. 사실 사회와 교육에 관련된 거의 모든 이론들은 역사적 경험과 현실이라는 맥락에서 구성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유형(자연을 관통하는 은총)이 성경적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형도 역사적 맥락과 현실에서 발견되어 발전되었고, 현실적 조건 때문에 기독교대학교들도 다소 다양성을 드러내면서 발전해 왔다.

그 이유는 창조세계의 현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보편적인 법과 질서의 측면(legal, order side)과 상황 안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그것에 복종하는 행위적 측면(subject, factual side)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기독교대학교와 관련하여 기독교공동체가 가지는 과제는 (1) 먼저 기독교대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법과 규범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 그리고 (2) 다양한 변인이 실재하는 현실적 조

9) 예컨대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는 기독교교양교육의 유형을 (1)기독교지성(기독교적 휴머니즘)구비, (2)성숙과 사회화유형, (3)학문적 훈련유형으로 구분하고 해당유형들의 한계점을 반성하면서 그것들과 더불어 추구해야 할 (4)shalom(shalom)유형을 제안하였다. N. Wolterstorff,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4, 10-26.

전에서 그 법과 규범을 가능한 방법으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기독교 대학교의 다양성은 결국 전자의 차이 뿐 아니라 후자의 다양성에도 기인한다.

기독교대학교의 유형들 중 처음의 3가지 유형(자연에 대립하는 은총, 자연위에 있는 은총, 자연과 병행하는 은총)은 그리스-로마문화라는 역사적 토대에서 형성되었다.¹⁰⁾

물론 그 외의 다른 유형들도 역사적 맥락을 잘 반영하고 있다. 기독교공동체가 경험한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설명해본다면, 지배적이고 적대적인 세상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거나 그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약자가 되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기독교공동체는 종종 “자연에 대립하는 은총” 유형을 따랐고 그러한 유형의 기독교대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다수의 종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공동체의 세계관은 “자연 위에 있는 은총” 유형을 따랐고 기독교대학교도 그러한 유형으로 발전되었다. “자연과 병행하는 은총” 유형은 기독교의 지배가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세속국가 중심적 세계관(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인본주의)이 확립되면서 결국 기독교공동체가 서로를 승인하게 된 타협의 세계관이며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서 기독교대학교들도 이 유형에 따라 운영되었다.

“자연과 유사한 은총” 유형은 근대와 현대의 서양사회가 주도적으로 인본주의와 자연주의 세계관을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기독교지성인들이 스스로를 그 유형에 편입시켜 형성한 세계관이며 그에 따라 기독교대학교들은 결국 일반대학교와 유사한 유형을 따랐다. “자연

과 유사한 은총” 유형의 확산에 대한 기독교공동체의 대응은 두 가지 방식, 곧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 공동체의 경우처럼 도피적이거나 독립을 추구하는 “자연에 대립하는 은총” 유형을 추구하거나, 개혁교회 공동체의 경우처럼 기독교세계관으로 근대와 현대의 인본주의 및 자연주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대응하는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 유형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대학교의 유형들은 서양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따른 기독교공동체의 대응태도를 반영한다. 내면적으로는 기독교세계관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구체적인 대응노력의 한 표현으로 기독교대학교의 유형을 통해 그 대응태도가 표현되었다.

서양사회의 역사적 발전이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을 대표한다고 할 때 그 영향을 받아 근대와 현대문명을 수용하여 발전하고 있는 제3세계 기독교공동체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발전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기독교세계관의 공격적 확산을 시도하기 위해 설립된 미션스쿨은 선교라는 방식의 지배적 시도였으므로 “자연위에 있는 은총” 모델의 초기유형이었다면, 해방이후 한국사회가 근대화과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그 미션대학교들은 “자연과 병행하는 은총” 유형으로 점차 퇴보해 왔고, 21세기에는 다원주의적 세계관에 따라 필수적인 경건회 참석제도가 도전받고, 예배와 기도형식의 경건회가 교양강좌 형태로 변하며, 기독교신앙교육과정도 축소되어 일반교양 교육과정에 흡수되는 현 상황을 볼 때, 서양의 역사의 흐름에서처럼 “자연과 유사한 은총” 유형으로 나아가 일반대학교화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교회 사역자를 양성하려는 의도로 세워진 독립기관인 신학교

10) B. J. VanderWalt, op. cit., 110, 114.

는 전형적으로 “자연에 대립하는 은총” 유형이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함께 신학교들은 신학대학이 되었고, 또 일반학과들을 증설하여 신학계대학교가 되었고, 고등교육의 수요에 부응하여 규모를 확대하면서 미션대학교가 되었다. 이 경우도 “자연에 대립하는 은총”에서 출발하여, 신학이 주도하는 “자연 위에 있는 은총”으로 나아갔고, 민주화와 다원화의 현실에서 급속하게 “자연과 병행하는 은총” 유형으로 나아왔으며, 이제 21세기에는 한국사회의 현실 맥락에서 대학경쟁력제고, 신입생모집문제, 재정확보문제, 직업훈련요구 등에 내맡겨져 결국 신학대학과 분리되면서 “자연과 유사한 은총” 유형으로 나아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이러한 유형적 진행을 거부하는 쉽고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자연에 대립하는 은총” 유형에 머물러 있어 독립적인 신학대학교로 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신학외의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기독교대학교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일반학문분야는 결국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영역에 버려두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잘 반영하는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 유형조차 인본주의 세계관이 주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에서 해당 유형 대학교의 유지와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유형을 창조적으로 실험하면서 발전시켜왔던 네덜란드 자유대학교는 1960년대 이후에, 그리고 이 유형의 전형이었던 남아공화국 포츨스트룸대학교는 2004년 이후에, 결국 정치 경제적 이유로 대학교 단위로는 더 이상 이 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의 세속적 특성이 더 강해졌고 동시에 기독교대학교를 지원하는 기독교공동체는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학교들이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국가는 재정과 법적 조건을 통해 사실상 기독교적 특성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 유형의 기독교대학교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유럽과 달리 사립대학교의 전통에 따라 부모와 학생들이 학비를 부담해왔고, 대학교의 규모를 기독교공동체의 지원으로 가능한 중, 소규모로 유지해왔고, 또 많은 투자비용을 요구하는 연구영역보다는 교육중심의 대학을 지향하여 기독교교양교육대학으로 경영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조차 유럽의 자유대학교나 아프리카의 포츨스트룸대학교와 같은, 북미대륙의 명실상부한 기독교종합대학교인 북미개혁주의대학교(RUNA)나 국제기독교대학교(ICU)를 설립하려는 일은 아직까지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¹¹⁾

결국 기독교대학교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기독교대학교를 인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독교공동체에 달려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기독교대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기독교공동체, 기독교대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독교공동체 없이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 유형의 기독교대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기독교대학교는 기독교공동체의 지원규모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다. 기독교공동체의 대학교에 대한 헌신은 클 경우 “자연 위에 있는 은총” 유형의 기독교대학교조차 유지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그 기독교공동체는 규모와 결속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교회여

11) J. C. VanderStelt, “기독교고등교육에 대한 몇가지 고찰”, 김성수 외, 「기독교대학과 학문자료집(1)」,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1995, 319-320.

야 한다. 대학교가 교회와 독립된 고유한 과제를 가진 법적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기독교가 주도하는 이상적인 사회 환경에서라면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들과 교육전문가 연합체가 대학교를 위한 기독교공동체일 수 있으나, 현실이 기독교가 주도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기독교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교회가 후견인이 되어 학생을 보내고 재정을 지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과제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독교대학교의 운영이 가능하다. 교회가 아닌 집단의 결속은 비교적 느슨하고, 대학을 지원할 정도의 규모가 못되며, 지속적인 헌신도 불가능하므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전에 유지하던 높은 수준의 유형들도 급속하게 타협적 유형으로 대체될 수 있다.

5. 결론

기독교대학교는 기독교세계관과 역사적 상황 조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드러낸다. 대학교의 목적과 구조와 기능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법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안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기독교공동체의 헌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학교의 유형은 역사에 등장했던 기독교세계관의 유형과 일치하여 (1) “자연에 대립하는 은총”, (2) “자연 위에 있는 은총”, (3) “자연과 병행하는 은총”, (4) “자연과 유사한 은총”, (5)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들은 상황 곧 기독교공동체가 세상 안에서 차지하는 실제적 역할과 영향력에 연동하였으므로 서양역사의 발전에서 뿐만 아니라 근대화와 민주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국과 제3세계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순서대로 이행해 왔다.

시대적 환경은 이론적 유형을 제한한다. 한국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경우 보수적이며 복음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고신대학교가 일찍이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 유형을 목표로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연과 대립하는 은총” 유형을 견지하는 교단지도자들과, “자연 위에 있는 은총” 유형을 생각하는 일부 교수들과, “자연과 병행하는 은총”을 생각하는 일부 교수들의 견해를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 유형으로 재구조화하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현대한국사회의 일반적 세계관과 현실적 상황이 그 발전 과정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학교로서의 고신대학교도 학생수급과 학교경영이 어렵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자연 위에 있는 은총”이 주도하면서도 어려움이 없었으나, 기독교대학교의 규모가 기독교공동체인 교단이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면서 신학대학원에 의해 사실상 “자연과 대립하는 은총” 유형이 대두되었고, 대학의 신입생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자연과 병행하는 은총” 유형이 불가피한 것처럼 대두되고 있다. 만일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신학대학을 제외하고는 “자연과 유사한 은총” 유형으로 이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고신대학교가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을 정체성화하려고 그 동안 많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상황이 이론적 유형을 크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참된 기독교대학교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 유형의 기독교대학교를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구현하고 발전시켜가려면, 결국 고신대학교는 기독교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교회와의 유대관계 안에서, 학생을 보내고 재정을 지원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주는 교회의 지원규모에 맞추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공동체가 기독교대학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교수와 직원들이 기독교대학교를 이 시대의 직업개념을 넘어 소명에 따라 헌신을 통해 일하는 기독교사역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교회가 기독교대학교와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면 기독교대학교는 역사에서 본 유형의 이행처럼 결국 “자연과 유사한 은총” 유형으로 진행될 것이고, 빛의 나라의 영적 원리가 교회와 전도사역에 축소되고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어둠의 나라의 영적 원리가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비록 고신대학교의 역할이 한국사회의 상황적 제한 때문에 그 동안 크게 효율적이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교회공동체는 기독교대학교의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대학교는 교회가 현실적 평가가 아니라 비전의 소명감으로 지원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용원 외, 「고신대학교의 교육적 사명」, 부산: 고신대학교, 1994.
- 김범주, 「신교육법」, 서울: 지정, 2001.
- 김성수 외, 「기독교대학과 학문 자료집(1)」,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1995.
- 김성수 편,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사명」, 부산: 고신대학교, 1998.
- 김성수 외, 「대학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상규, 「고신대학교 50년(1946-1996) 역사」, 「한석오병세박사은퇴기념논문집」, 부산: 고신대학교, 1996, 5-35.
- 이환봉, <칼빈의 교육적 유산>, 「이근삼박사사역50주년기념논문집」, 서울: 총회출판국, 2002, 355-386.
- 전광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CUP, 1998.
- 조성국, <화란 개혁신학의 맥 이은 아프리카의 희망봉: 남아공화국 포츨스트롬대학교>, 「빛과 소금」, 1996년 4월.
- 조성국, <한국 신학교육기관 및 기독교대학의 변천과 발전>, 「고신신학」 4, 2002.
- 조성국,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교교육」, 부산: 고신대학교부설기독교교육연구소, 2003.
- 조성국, <기독교세계관교육>, 침례교신학연구소 편, 「문화를 알면 교육이 보인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111-152.
- 조성국, <기독교학교와 학생의 종교>, 「교회와교육」, 2005년 봄/여름, 98-109.
- Carpenter, J. A., *The Perils of Prosperity: Neo-Calvinism and the Future of Religious Colleges*, 심재승 역, <칼빈주의와 기독교 대학의 미래>, 「백석저널」
- 창간호(한국기독교대학의 정체성), 2002 봄, 161-193.
- Fowler, S., *A Christian Voice among Students and Scholars*, Potchefstroom: IRS, 1991.
- Hughes, R. T. & Adrian, W. B.,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rvival and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97.
- Hulst, J. B., <기독교대학의 세속화>, 「통합연구」 13, 1991년 11월. 51-99.
- Niebuhr, H. 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51.
- Reid, S. ed.,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VanderStelt, J. C., <기독교고등교육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김성수 외, 「기독교대학과 학문자료집 (1)」,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1995, 311-323.

VanderWalt, B. J., *The Liberating Message: a Christian Worldview for Africa*, Potchefstroom: IRS, 1994.

Walsh, B. J. & J. R.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Downers Grove, Ill.: IVP, 1984.

Wolterstorff, N.,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4.

선교 공동체로서의 기독교대학 :

선교인력의 양성 방안에 관한 일 고찰

Christian University as a Mission Community :
A Study of Missionary Mobilizing Method

신경규 / 선교학박사,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Prof. Kyung Kyu Shin

서론	140
I. 기독교대학의 개념	140
II. 기독교대학과 교회, 예배, 그리고 선교	143
III. 기독교대학과 단기선교, 전문인 선교	146
1. 대학생 단기선교지역	146
2. 전문인선교	149
3. 기독교대학과 전문인선교	153
IV. 기독교대학의 타 문화권 선교사 양성방안	157
1. 기존의 연구	157
2. 기독교대학의 타 문화권 선교사 양성방안	161
A.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 힘: 흡인력과 팽창력	161
B. '가는 구조'를 통한 선교인력 양성방안	163
C. '오는 구조'를 통한 선교인력 양성방안	171
결론	177